

해도면(Sea Island Cotton(1))

"섬유의 보석(Jewel of Fiber)" 혹은 "면화의 여왕(Queen of Cotton)"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고귀하였던 해도면! 이 이름은 영어를 우리말로 직역하여 놓은 말이다.

이 해도면은 카리브 해상에 떠 있는 여섯 개 섬에서 재배되는 면화로서, 그 원산지는 남미가 발상지이며 학명은 고시피움 바바덴스(*Gossypium Barbadense*)이다. 이 면화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세계 여러 나라의 면화 중에서 섬유장이 가장 길다는 점이다. 즉, 평균 섬유장이 약 49mm(45-55mm)로서 다른 면섬유(대략 25mm)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초장섬유면으로 분류된다.

또한, 섬유의 굵기는 천연섬유 중에서는 실크 다음으로 가늘며, 실의 변수를 구성하는 섬유 올 수가 많고 강도와 유연성이 대단히 좋다. 동시에 빛의 반사율이 좋아 광택이 풍부한 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천연적인 꼬임이 획기적으로 많아서 직물로 제조하였을 때 별키성, 유연성 및 복원력이 우수하다. 또한 동시에 유지분 함유량도 많아서 캐시미어와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면의 존재는 세계 면화사상 그 존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면화를 말하면서 이 해도면을 빼놓고 말 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과 영향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초장섬유 면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 해도면은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 남단에서부터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걸치는 카리브해 동쪽에 떠 있는 여섯 개의 섬에서 생산되는 면이다. 여섯 개의 섬이란 네비스(Nevis), 안티구아(Antigua), 몽세라트(Montserrat),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 바바도스(Barbados) 그리고 그라나다(Granada)의 6개 섬이다. 이 섬들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2차 대전 후 몽세라트 섬을 제외하곤 모두 독립국이 되었다.

이 섬들은 강우량이 적어서 연간 평균 152c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습도도 낮다.

또한 연간 평균 기온이 20-22도 정도에다 풍부한 햇볕과 맑은 공기, 따뜻한 해양풍과 천혜의 좋은 기후, 나아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적다는 자연조건 때문에 다른 곳의 면화가 따라올 수 없는 양질의 면화가 생산되는 것이다.

해도면은 재배가 어려워서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섬유장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사람의 손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130kg 정도 수확하는 것이 한계이다. 이것을 조면하면 50kg 정도가 된다. 여기에 좋은 기후조건이 해충의 발생을 불러와 "면화의 여왕"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해충에 약하여 생산성이 더욱 낮게 된다.

이 6개 섬에서 생산되는 해도면은 일본과 영국의 WISICA(서인도제도 해도면 협회)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이곳의 관광 상품용 이외의 생산량 전부를 일본이 독점 수입하고 있다.

필자도 실크 드레스 셔츠와 착각할 정도로 부드럽고 매끈한, 해도면으로 만든 일본제 드레스 셔츠 한 벌을 아껴가며 입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공석봉)

